

광주·전남 혁신도시 전입률 전국 '최하위'

각종 지표 '바닥'...전입률 67.7% 그쳐 전국 꼴찌 수준
지역 대학졸업생 수 '최고'...지역의무채용 '평균' 이하

광주·전남혁신도시가 계획 인구수에 비해 주민등록 인구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혁신도시 지역 내 대학교 수와 대학졸업생 수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무채용률은 평균을 밑도는 등 각종 지표가 바닥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말 기준 전국 혁신도시의 계획 주민등록 인구 26만7869명 중 실제 전입한 주민등록 인구는 79.8%인 21만3817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광주·전남혁신도시는 계획 인구 4만9499명 중 실제 주민등록 인구는 3만3525명으로 전입률이 67.7%에 그쳐 전국 꼴찌 수준이다.

계획 주민등록 인구수를 초과한 혁신도시는 부산(107.1%)이 유일했고 울산(95.5%), 강원(94.3%), 전북(92.9%), 제주(91.9%), 경북(83.2%), 대구(82.3%)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가족동반

이주율이 68.8%로 전국 평균 65.3%를 간신히 넘겼지만, 독신·미혼자수가 2138명으로 전국 평균 1200명에 두 배에 이른다. 1인 가구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아 가족동반 이주율의 거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의무채용률(2019년 기준)은 24.6%로 전국 평균 25.9%보다 낮았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보다 더 낮은 지역은 경남, 제주, 충남뿐이었다.

지역인재 채용도 광주·전남혁신도시 전체 채용인원 3166명 중 17.3%인 549명이 채용되어 전국 평균 15.4%보다는 높았지만, 공동혁신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부산이 32.4%로 가장 높았고 대구(24.5%), 경북(22.1%), 충북(19.8%), 충남(18%) 순이었다.

광주·전남은 대학교 수 40개, 최근 3년 평균 졸업생 수 3만6199명으로 부산, 대구를 제외하면 대학교 졸업생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절실한 실정임에도 다른 시·도가 대부분 운영 중인 '지역인재 채용협의회'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항 11일만에 입항하는 무궁화10호

이와 함께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보급률은 79%로 전국 평균(87.1%)보다 낮았고 이는 충북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피격 실종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승선해 있었던 어업 지도선 무궁화10호가 사고 6일만인 27일 오후 목포시 전용부두로 입항

초·중·고등학교도 계획 대비 70% 수준으로 전국 평균(79.6%) 이하인 데다 유치원도 63.6%로 전국 평균(85.1%)보다 낮아 혁신도시 중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교육 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 복지 인프라 접근성도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기 기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전기공사 본격화

차량기지 시작 내년까지 1214억 공사 발주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차량기지 전기공사에 본격 착수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관련 전기공사 3건을 최근 조달청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했다. 공사비는 114억원으로 국비 60%, 시비 40%로 총당된다. 10월 중 업체가 선정되면 11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는 지난 6월 착공한 유촌

동 차량기지 토목·건축·폐도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며 따른 후속 공점으로 발주하게 됐다.

시는 지역 전기공사 업체의 많은 참여를 위해 송변전, 일반전기, 전차선 등 3개 분야로 분리했다.

송변전과 일반전기는 시공 실적이 없어도 단독 입찰할 수 있고, 전차선은 시공실적 1km 이상 단독입찰이 가능하지만 시공실적이 없으면 지역업체 49% 의무공통도급 조항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 오는 11월 전기분야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면 1100억원 규모의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본선 17km와 정거장·환기실 20곳의 전기공사·관급자재 등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이다.

박남주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국비 지원 60% 확보에 적극 힘쓰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전기 관련 전문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주 기자

"섬진강댐 방류 문제 투명 조사·책임 규명"

구례 찾은 정 총리 "필요시 국회 협력 제도 개선도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구례 수해와 관련된 섬진강댐 방류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자 구례군을 방문해 이같이 말한 뒤 "구례군 주민들도 정부를 믿고 잘 지켜봐달라"고 했다.

구례 군민들은 섬진강댐의 불시 방류로 지난 8월 초 막대한 수해를 입었다며 수해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필요시에는 국회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정 총리는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장터에도 들러 집중호우 피해 복구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거리두기 2단계 2주 재연장
"2주 추석 특별방역기간"

추석명절 연휴 기간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0월 11일까지 2주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유지한다"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금지 조치한 고위험시설 6종 외 나머지 집합제한시설 33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로당 등 사회복지 시설과 어린이집 운영 중단, 노인요양시설 면회금지, 스포츠경기 무관중 진행, 공공시설 제한적 운영 등 조치도 10월 11일까지 유지한다"며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투명 가림막 등 비접촉 설비를 갖춘 경우 추산 연휴인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한적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한 달 가까이 집합금지로 영입이 중단돼 누구보다 추석 특수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다"며 "하지만 정부는 민족 대이동으로 인해 지역감염이 재확산될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2주 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한동주 기자

행정통합준비단 출범	2면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난항	3면
추석물가 경총	4면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호남매일 임직원 일동-
추석연휴 휴무로 29일~
10월 5일 신문 쉽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사람이 비우면 자연은 채웁니다

사람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 나비가 날아들고 새들이 지저귀니다.
사람의 발길이 잦아든 자리에 푸른 열매가 자라고 붉은 꽃이 필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푸른 세상을 꿈꿉니다.